

문화

2010 문화계 결산

㉞ 문화출판·문화재



2006년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관모 등의 유물이 긴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지난 6일 전남대박물관에서 지역 관람객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중진작가 맹활약.. 문화재 발굴·전시 활발

2010년 한해는 광주·전남 출신 중진 작가들의 활약이 어느 때 보다 두드러진 해였다. 소설가 조경래(67)씨는 지난해 자전 에세이집 '황홀한 글감옥'에 이어 올해 10월에는 대기업의 비리와 권력자들의 비밀을 신랄하게 파헤친 장편소설 '허수아비 춤'을 출간해 주목을 받았다.

만식 문학상'을 수상했다. 짧은 작가 중에는 이대홍(42) 시인의 활약이 돋보였다. 장흥 출신인 이 시인은 연초 발간한 시집 '귀가 서럽다'로 '육사 문학상'의 '짧은 시인상'을 거머쥐었다.

아버지가 호적을 1년 늦게 올려 정년이 1년 늘어났던 것이 아버지가 주신 유일한 유산이라며 호탕하게 웃는 시인은 정년을 앞두고 90편의 시편을 3부로 나눠 엮었다.시는 모두 신작이며 그가 안산년 차 어머니가 계산 지리산 깊은 곳에 머물면서 창작한 것이 대부분이다.

'허수아비 춤' '이별하는 골짜기' 등 주목... 서점·출판계 불황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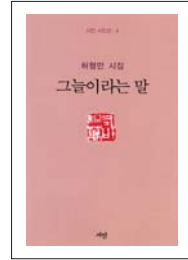
소설가 임철우(56·한신대 문창과 교수)의 상승세도 감지됐다. 작품활동이 뜸했던 임씨는 지난 9월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사는 이들을 애정이 어린 시선으로 다독이는 장편소설 '이별하는 골짜기'로 돌아왔다. 작가들의 각종 상 수상 소식도 잇따랐다.

문학관행기행특구' 장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의 문인 300여명을 초청, 전국문학인대회가 개최됐다. 또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 등의 작품을 남긴 한국 소설계의 거목 이청준 선생 추모제가 열렸고, 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이청준 문학자리'도 개원했다.

발굴과 보존 작업을 거쳐 물려왔던 문화재들이 새 빛을 보는 한 해이기도 했다. 지난 2006년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관모 등의 유물이 긴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지난 6일 전남대박물관에서 지역 관람객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일상 속 풍경을 맑고 고운 詩語로

허형만 교수 열세 번째 시집 '그늘이라는 말' 펴내



일상 속 풍경과 사물을 관조적으로 표현해 온 허형만(65·사진) 목포대 국문과 교수가 열세 번째 시집 '그늘이라는 말'(시안 펴냄)을 냈다. 아버지가 호적을 1년 늦게 올려 정년이 1년 늘어났던 것이 아버지가 주신 유일한 유산이라며 호탕하게 웃는 시인은 정년을 앞두고 90편의 시편을 3부로 나눠 엮었다.

관조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감상하고 곱게 다듬어 주옥같은 작품을 쏟아냈다. 특히 '그늘'이라는 말에 전착해 비와 송편, 손톱, 별, 축, 나비, 길 등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소재에서 시상을 찾고 맑고 고운 채로 걸러 자신만의 시어로 창조해내는 솜씨는 일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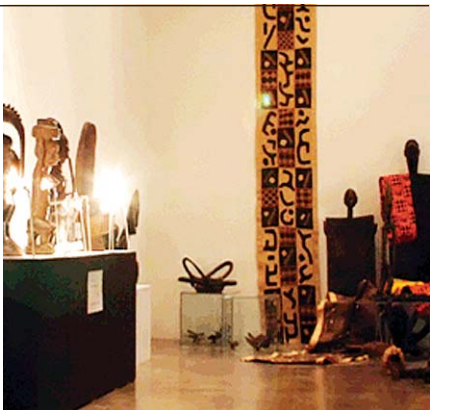
작가는 또 '사람을 노래할'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은 사랑이다"며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날고 있을 땀 길을 잃지 않는다"는 말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는 허 교수는 시인의 말에서 "시인이 시를 쓴다는 말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 시 한 편에 목숨을 건다는 것, 그래서 말을 잊은 지 오래, 오로지 내 안의 나를 찾기 위해 노모와 누이가 있는 지리산 깊은 곳에 들근 했다"고 썼다.

아트센터 대담에 가면 '너도 나도 모델'

29일 비움채움 패션쇼

담양에 위치한 아트센터 대담(관장 정희남)에서 29일 오후 7시 특별한 패션쇼가 열린다. 비움채움 패션쇼 '너도 나도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일반인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한다.

쇼를 기획했다. 참가자들이 입는 의상은 패션 디자이너 니카놀(김순일)의 작품. 강진 출신으로 조선훈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니카놀은 뉴욕·파리·런던 패션쇼 등에 참여했으며 광주 충장로와 예술의 거리 등에서 매장을 운영했다.



프리카 특별전-꿈꾸는 검은 유혹'전시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참가비는 2만원에, 패션쇼에서 입을 옷과 간단한 식사, 차를 제공한다. 문의 061-381-0081./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인의 정체성을 찾아 이조흠 개인전

31일 예술의 거리 주 갤러리

독특한 회화와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이조흠씨가 오는 3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주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BRAND NEW'를 주제로 신상품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들여다본 회화, 사진, 설치, 영상 작품을 선보인다.



가졌다. 광주시립미술관 팔각정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하는 등 활발히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키스해링겐 보러오세요

농성동 주민들 무료 초청. 눈 부신 색깔로 지역 화단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키스 해링겐'(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2011년 2월27일까지)에 미술관 인근 지역인 농성동 주민들을 무료·초대한다.

Advertisement for '하나투어' (Hana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Shanghai, Hong Kong, and Beiji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company details, and promotional offers.